

2. 지방자치와 지역사회개발

金 一 鐵

(서울대 사회대 교수)

<차례>

- | | |
|---------------|--------------------|
| 가. 지역사회개발의 목표 | 다. 타율적 개발과 자율적 개발 |
| 나. 지역사회의 개념 | 라. 지역사회의 자율적 능력 개발 |

가. 지역사회개발의 목표

지역사회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넓은 영역에 걸친 복합적인 현상과 관계된다. 이것은 사회발전이라든가 근대화를 단위지역사회에서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이러한 목표는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인간생활 전체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복합성도 지역사회가 「인간의 생활터전」이며 인간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또한 이러한 목표는 결국 인간 자신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본다면 지역사회개발이란 것도 다른아닌 인간 자신의 '능력을 개발' 하여 인간생활의 터전인 지역사회를 보다 풍요로운 생활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은 물론 인간 개개인의 개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단적·조직체적 노력과 구조적 개선을 통한 인간개발이다. 개인의 문제가 개인의 힘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며 집단과 조직체 혹은 사회전체의 도움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이 구조적 성격을 뚜렷이 한다. 지역사회개발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주민의 능력개발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개발의 단위는 지역사회 전체주민이며 이를 개인차원으로 환원시켜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분석의 단위를 혼돈하는 데서 문제의 핵심이 흐려지기 때문이다. 어떻든 지역사회개발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가장 기초적인 주민전체의 능력개발을 지향하며 이는 본질적으로 구조적인 성격의 문제라고 전제하고자 한다. 물론 여기에는 어떠한 종류와 성격의 능력개발인가 하는 문제가 분명하게 되어야

하며 이 논의는 잠시 뒤에 미루기로 한다.

나. 지역사회의 개념

우선 지역사회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서는 지역사회를 엄격히 규정할 필요는 없지만 어떠한 지역도 이젠 개방시대에 오면서 각종 자원의 대규모 이동과 교류가 일어나고 있어 지역사회의 경계선을 엄격히 구분할 수도 없고 또 할 필요도 없다 하겠다. 그러나 아직도 농촌과 같은 지역에서는 비록 과거보다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더라도 지역적 특수성과 자율성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개발을 다루는 범위 안에서 개념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지역사회를 “주민의 대부분이 일상생활의 주요 부분을 그 안에서 영위하는 지리적 생활공간”이라 해 두자. 인간생활의 모든 부분이 일정한 좁은 지리적 단위 안에서 모두 해결되는 경우는 현대사회 그리고 도시사회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생활의 주요 부분 예를 들면 주거지를 중심으로 그 인근지역 안에서 시장을 본다든지 어린이가 학교를 다닌다든지—특히 유치원—말단 행정기관의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도시지역에서도 해당된다. 주거지를 동일지역에 같이 한다는 것이 도시사회에서는 별 다른 의미가 없으나, 그러나 농촌지역에 있어서는 아직도 큰 의미를 가졌다는 점에서 도시지역은 ‘공동이익(common interest)’을 매개로 한 지역사회를, 그리고 농촌지역은 주거지 공동이라는 ‘지역적 지역사회’를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분법도 엄격히 할 수 없으며 다만 양자를 하나의 연속성(continuum)에 둔 양극을 개념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지역성과 이익을 양극에 둔 여러 형태의 조합이 가능할 것이며 농촌이나 도시지역사회라 하더라도 여러 형태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리성을 강조하는 하나의 극과 지리적 공간성을 전연 무시하고 이익의 공동이라는 ‘관계’만을 중요시하는 또 하나의 극을 전제로 한 두 극단적인 형태를 개념적으로 분류할 수 있겠고 현대사회에 올수록 점차 지리적 공간의 중요성이 약화되면서 지역성과 이익의 혼합형인 중간형태로의 이행, 그리고 순수한 공동관심만으로 형성된 이익지역사회로의 이행을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이 땅을 땅에 붙이고 생활하는 한 지리적 공간의

공유성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생활(어떠한 종류의 생활이라도) 근거를 같이 한다는 것은 최소한 어떤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게 되기 때문이다.

현대에 오면서 지역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우선 지역사회와 외부와의 관계를 보자. 각 사회는 국가사회로 발전하면서 각종 국가봉사·지원 기능이 각 지역사회로 침투하기 시작하고 정부부문 이외에도 각종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의한 정보, 재화, 봉사, 지식 등의 침투와 개입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기관, 준정부기관, 상업 및 민간기관에 의한 각종 재화, 지식, 봉사, 정보 등의 지역사회침투는 사회 전체의 발전 그리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개입의 증대는 필연적으로 외부에서 내부에로의 각종 봉사와 정보의 이동만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이에 따라 내부로부터 외부에로의 동시이동을 증가시키면서 외부와 지역社会의 관계는 매우 개방적이며 동적인 관계로 전환된다.

이러한 동적 개방화에 따라 사회전체의 발전방향인 산업화, 도시화, 관료제화의 영향이 지역社会의 각 부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는 외부와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연결을 점차 밀접하게 하고 전체사회 속의 지역사회로서 그 관계를 두텁게 쌓아가게 된다. 이러한 외부와의 관계증대는 필연적으로 외부에 대한 지역社会의 의존도를 높이며 전통사회에서 볼 수 있었던 자족적(自足的) 생활권으로서의 지역사회를 청산하고 점차 전체 속의 부분으로서 보편성의 확대라는 방향에서 생활권의 팽창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社会의 외부에 대한 각종 연결망(連結網)의 증가와 확대를 말하며 동시에 각 지역사회에서 발전시키고 또 보유하였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특수성의 감소를 가져오게 한다. 그리하여 각종 특수한 지역적 관습, 전통, 의례 등이 점차 소멸될 우려에 직면하고 외부의 획일적인 가치, 재화, 기술, 지식 그리고 정보에 접하게 된다. 지역社会의 발전은 이러한 외부와의 연결을 증대·팽창시키고 있는 과정에서 이해되지 않을 수 없다.

다. 타율적 개발과 자율적 개발

지역사회가 급속히 개방되어 외부로부터 획일적인 정보, 조직, 가치, 지

식, 재화 등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도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하여 전문화와 분화라는 “기능적 분화과정”을 통하여 외부와 연결된다. 그리하여 청소년은 청소년회로, 부녀들은 부녀회로, 과수·원예농가는 과수·원예협동조합으로, 일반농가는 농협으로, 학부모들은 학교사친회로, 새마을일꾼은 새마을협의회로 각기 그 전문기능에 따라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조직체로 흡수·연결된다. 뿐만 아니라 각 농작물의 특성에 따라 특유의 판매조직망에 연결되고 있다. 그리고 과거의 전통적인 단순작물재배에서 점차 다각적 농업을 실시하면서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 경영, 판매가 요청되고 이러한 요청(수요)에 따라 지역사회의 각 농가도 다양한 그리고 분화된 기술, 정보, 조직에의 가입 등이 일어나게 된다. 어떻든 외부와의 관계가 점차 개방되면서 지역사회는 결과적으로 점차 외부에 대한 의존도를 증가시키게 되어 간다. 우선 농업에서만 보더라도 자가소비를 위한 생산에서 상업적 판매를 위한 상업농업으로 전환되면서 이러한 외부의존도의 심화는 불가피한 현상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농가부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외부에의 의존심화는 비단 농가경제에 있어서뿐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현상에 있어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각종 전통적인 지역사회 고유의 관습과 제도가 사라지고 그대신 외부로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것으로 대치된다. 교육, 조직체, 가치관, 혼인, 가족제도 등이 그 좋은 예다.

이상과 같이 오늘날의 지역사회는 개방이라는 과정 속에서 전체사회의 변화방향인 산업화, 도시화, 관료제화에 대해 “기능적 분화과정”이란 방법을 통하여 전체사회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의존은 지역사회 발전과 매우 깊은 함수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지역사회의 개발과 발전의 목표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수준을 향상시켜 보다 살기 좋고, 평등하며, 편리하고, 윤택스런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를 달성하는 방법이 이미 말한 개방과 분화과정에서 어떻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 지역사회의 변화가 많은 영역에 있어서 외부의 원인에 의하여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전적으로 외부에 의해서만 수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지역사회개발과 발전은 이러한 외부에 의한 변화와 함께 내부자체의 힘을 합하여(내생적 변화) 자조적(自助的) 정신으로 변화와 발전을 촉진시키자는 것이다. 이러한 내생적 변화의 필요성은 첫째, 내생적·자조적 노력을 하지 않을 때, 외부의 획일적 변화에

휩싸여 지역사회의 특이성과 독자성을 상실하고 지역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적 여건에 적합한 방향에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외부의존적으로 타율적 변화만을 수용하기보다 적극적으로 필요하고도 적절한 변화를 앞당길 수 있는 것도 내생적 협동을 통하여 가능하다.

이상과 같은 점을 유의하면 지역사회개발은 외부에 의한 타율적 발전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자체와 내부에 의한 내생적·자율적 발전이 동시에 중요한 요인이 됨을 쉽게 지적할 수 있다. 예를들면 주요 도로의 개설·포장, 수리시설의 개선과 확장, 교육시설의 개선, 보건·의료시설의 도입 등 지역사회 주민 자체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운 분야는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획일적으로 실시될 수 있으나 농산물의 공동판매, 필수품의 공동구입, 민주적 의사결정 기구의 운영, 식생활개선, 새로운 영농기술도입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정착은 주민의 변화에 대한 자율적이며 적극적인 태도와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리하여 외부의 계획과 내부의 협동 즉 타율과 자율이 결합되면서 지역사회개발의 효과는 극대화된다. 완전히 타율적 개발방식, 말하자면 모든 변화를 외부에서 계획하고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는 단순히 추종만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없으며 그 반대로 외부의 간섭없이 모든 변화와 발전을 전적으로 지역사회에만 부담시키는 순수한 자율적 개발방식도 현대국가에서는 볼 수 없다. 이 두 가지를 적절히 혼합하여 지역사회가 어디까지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개발을 유인, 추진, 촉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지역사회주도권'에 의한 지역사회개발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실시하는 타율적 개발방식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만 하는데 이의 조화달성을 그리 간단치가 않다. 외부의 지시, 계획, 압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개발방식이 국가의 권한이 커지면서 생겨나는 신생국에 있어서의 공통적인 특성이다. 중앙정부나 국가 주도하의 타율적 지역사회개발정책의 타당성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국민의 자율적 기반 취약—생활수준과 교육수준의 부족, 지도자의 결핍, 자율적 협동의 어려움 등; 둘째, 급속한 개발의 필요에 따른 타율적 개발의 불가피성; 세째, 변화와 발전에 대한 주저, 불안, 거부현상; 네째, 중앙정부의 성격; 다섯째, 획일적인 기초사업의 필요성.

이상 다섯 가지의 타율적 개발정책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여건들은 사회에 따라, 또 발전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획일적으로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와 같은 외부기관에 전적으로 그 개발을 위임하는 타율적 개발방식만으로써는 이상적인 지역사회 발전을 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중앙집권에 의한 전적으로 타율적인 개발방식은 물론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주민의 참여는 언제나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타율적 개발이 반드시 강제성이나 통제방식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지역사회의 개발계획 단계에서는 주민의 참여가 없으면서도 실시단계에서는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외부의 계획일지라도 주민이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계획 이전의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참여가 핵심이 되고 계획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도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비록 계획수립 자체는 외부에서 하더라도) 내부와 외부의 융합에서 지역사회개발사업이 전개되고 있는가에 있다. 이미 지적한대로 외부의 자원투입은 지역사회개발에 불가결한 것이다. 외부자원투입이 내부의 수요와 참여를 어느 정도 기초로 해서 실시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타율과 자율의 한계를 논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하겠다.

지역사회개발과 발전은 지역사회의 주인인 해당 지역사회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초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을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는 다음 두 가지의 의미가 주어져 있다. 첫째는, 지역사회개발이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초로 하고 또 장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둘째는, 자발적 참여가 제도화되어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자발적으로 진단·예견·처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에 필요한 인적·물적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훈련과 조직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물론 지역사회주민의 이러한 능력이 아무리 강화되어도 지역사회의 모든 문제와 욕구를 단독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며 외부의 적절한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청되지만, 그러나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의지, 동기, 능력 없이는 아무리 좋은 외부의 지원도 그 효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사회발전의 방향이 민주주의를 생활화·토착화시켜야 한다는 명백한 목표를 여기서 다시 거론할 필요없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지역주민의 참여(자발적)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기체의 정착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인 것이다. 보다 기술적인 차

원에서 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한지를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 타율적인 의부에 의한 개발방식은 지역주민의 충분한 동기유발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 개별 상황을 무시한 획일적인 사업의 실시를 강요하기 쉽다는 것이다. 세째, 지역 사회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시기적으로 적합성이 없는 사업이 소개될 우려가 있다. 네째, 일반적으로 일정한 시간 내에 급히 완성해야 한다는 제약 때문에 주민의 동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때로는 지역사회내부에 갈등을 야기시킬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것이다.

비록 기초적이고 보편적으로 필요한 획일적인 사업(예, 경지정리, 주택개량, 보건 및 의료사업, 학교교육 등)이라 할지라도 자율적인 주민의 참여조직이 제도화되지 못하면 이러한 사업의 진행 자체도 난관에 봉착할 뿐 아니라 이러한 사업의 지역사정에의 조절기능이 마비되어 사업실패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러한 지역사회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자발적 주민참여의 기회와 기제의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주민의 조직을 제도화·강화시켜 나가야 하는데, 지역에 따라 다양한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인 특수사정이 존재함을 참작한다면 중앙정부에 의한 통일되고 획일적인 정책보다는 해당 지역에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기관의 자율권을 보장하여 그 지역주민의 욕구, 염원, 문제, 그리고 개별적 사회·경제적 상황을 쉽게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정부의 지역개발정책에 그 지역의 주민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점차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참여기회의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내부에서도 자발적인 참여기회의 제도화가 구조적으로 용이하게 된다. 이것은 다시 말해 지역사회 내부의 자발적 참여의 제도화는 해당지역 지방정부의 자율권확보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음을 말한다.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자율권의 확보없이 지역사회 내부에서만 자율권과 자발적 참여를 권장한다는 것은 상호모순될 뿐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다. 지역주민의 의사나 참여와는 무관한 상태에서 지방정부의 각종 개발계획이 실시된다면 지역사회내부에서조차 자발적 참여의 필요성과 적합성은 구조적으로 봉쇄되고 마는 것이다. 이렇게보면 지역사회 내부의 자율적 참여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자율권의 확보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지역사회의 자율적 능력개발의 “구조적 연관성”이라 할 수 있다.

라. 지역사회의 자율적 능력 개발

지역사회의 개발과 발전에 있어서 주민의 능력배양이라 할 때 도대체 어떠한 '능력'을 말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개발의 보다 역동적인 관계를 살펴볼 수가 있다. 지역사회는 이미 이 글의 앞머리에서 언급했듯이 개방, 이동, 다원적 연결이라는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는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능력을 필요로 하는가?

첫째로 언급해야 하는 것이 지역사회조직능력이라 할 수 있다. 과거에도 공식·비공식조직이 지역사회에는 있어 왔다. 질서가 존재해 온 곳에는 조직이 있다는 것은 명백한 것이지만, 과거와 현재의 엄청난 변화에 적응하는 새로운 조직은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중요하다. 우선 평등조직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남녀노소 그리고 부농과 영세농, 고학력자와 무학력자와 같은 차이를 초월하여 모든 주민이 평등하게 발언·참여·권리·의무행사를 할 수 있는 개방된 조직원리를 가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부락민총회, 반상회, 각종 단체의 기능활성화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는 폭넓은 보편적 의사와 참여를 기초로 조직되어야 할 것이다. 지도자와 책임자의 선출, 특정 임무와 기능에 대한 권한부여 등이 이와 같은 평등·보편적 원리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직체는 대표성이 있고 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부여받으며 외부와의 관계에서 유리하게(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통합성을 높여준다. 이와 같은 이상적인 '조직체를 발전시키는 능력'은 이미 언급한대로 지역사회 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자율권 확보를 통해 제도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영웅적' 지도자 개인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평등·보편적 조직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지방자치와 자율적 주민참여의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은 소원해질 것이다.

두번째의 능력은 이상과 같은 조직체를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외부와의 관계에 있어서(지방정부, 유관기관, 상업단체, 타 지역사회 등) 지역사회의 이익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에서 그들과의 협상과 협동에서 적극적이며 혁명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할 수 있다. 외부와의 관계가 중대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지역사회발전에 점점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한

다면 이러한 외부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핵심적인 것이다. 이를 위해 외부변화의 여러 정보를 입수·평가하고, 외부에서 필요로 하고 지역사회에서도 필요한 것을 결합시키는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또 유리하게 이들을 유통·협상, 협동·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오늘과 같은 급속한 변화시대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지방자치와 지방자율제도라는 것도 일종의 개방 경쟁체제에 적합한 능력을 배양시킨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체제는 외부정보의 신속한 입수와 이에 대한 자율적 평가기능을 강화시킨다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경쟁시대에 맞는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은 지역사회의 경쟁능력배양에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외부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견·유통하고 내부의 자원을 유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외부와의 관계를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도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직접·간접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상으로 우리는 지역사회개발이란 지역사회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고 이 능력은 평등·보편적 원리에 입각한 조직의 능력, 그리고 외부와의 관계를 유효적절하게 유지·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규정하였다. 동시에 이러한 지역사회의 능력은 지방의 개발당국(지방정부)의 자치제도의 활성화에 구조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지역사회의 진정한 개발은 이러한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자율적 기제가 필수적인 것이며 이것은 지역사회단독으로는 확보될 수 없는 성격의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능력배양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인가? 지역사회발전은 어떠한 발전을 지향하는 것인가? 인간생활은 지금 국도의 대형화 추세에 직면하여 인간의 개체적 가치를 상실해 가고 있다. 누구か 누군지도 모르는, 그리고 아무도 전체를 알 수 없는 그리하여 개인의 위치와 의미를 찾기 힘드는 거대도시·거대사회 속으로 휩싸여 들어가고 있다. 인간생활의 기본단위인 가족도 이러한 대형화추세에 휘말려 정체위기 속에 있다. 이러한 위험한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가 서로를 알고 의지하며 협조할 수 있는 ‘인간적 지역사회’를 건설하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과제이다. 이상사회와 유托피아를 상실한 현대이다. 우리는 물질적 풍요와 자유를 위해 인간의 의미, 삶의 의미를 상실했는지 모른다. 지역사회—인간적인 삶을 평

화롭게 영위할 수 있는—의 재건은 가족을 위기에서 구하고 현대인과 현대 사회의 온갖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회와의 재건은 물질적 풍요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평등하며 자유롭고 정의로운 그리고 서로간에 의미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적 지역사회’의 건설은 지역사회개발의 최종 목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실현도 그 기초는 지역사회 자체의 능력의 성숙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 주변 장치의 자율권 확보는 필수적인 제일보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권태준 외

1983 『지역사회개발론』, 서울대 방송통신대학.

권태준·김광웅

1983 『한국의 지역사회개발』, 법문사.

왕인근

1982 『한국농촌개발연구』, 일지사.

정지웅·김지자

1973 『지역사회개발』, 배영사.

R. Dore and Z. Mars (eds.)

1981 *Community Development*, Croom Helm, Unesco, Paris.

Jessie Bernard

1973 *The Sociology of Community*, Scott, Foresman and Co., Glenview,

Ill. (안태환 번역, 박영사, 1982).

Potter et al. (eds.)

1967 *Peasant Society*, Little Brown, Boston.

김일철

1973 “경제개발과 지역사회개발,” 『사회과학』, 12집,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1981 “사회변화와 사회개혁운동 조직의 재편문제,” 『새마을운동종합연구』, 제 1권, 서울대 새마을운동종합연구소.

1983 “한국사회의 변화와 농촌지역사회개발의 방향,” 『한국사회의 전통과 변화』, 서울대 사회학연구회편, 법문사.

1984 “Structural Change in Korean Community,” 일본사회학회주최 아세아 사회학회의 발표논문, 고오베, 일본.